

# 美·中共 協力關係가 韓國安保에 미치는 영향

李 鎮 三  
(國防部 陸軍 中將)

## The Influence of Sino-American Cooperative Relations on Korean Security

Jin-Sam Lee

Lieutenant General,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al process in 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n to examine the impact of these relations upon Korean security. Recent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ituation represent the most critical variables for Korean security. The Sino-American relationship has undergone many apparent and some subtle changes during the past decade. During the initial period both governments sought ways to establish formal relations in two parties. During the next period formal and economic cooperation was emphasized. And, the third is the period of military cooperation. The atmosphere of growing Sino-Soviet reconciliation during the 1980's in particular serves as a limiting factor on Sino-American relations and reveals China's importance as a variable in the Northeast Asian stability.*

### I. 序 論

우리나라의 安保에 관한 論議는 '安保 곧 國際情勢' 라는 認識 위에서 展開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安保現實이 제 2 차 세계 대전이라는 國際戰爭에 의한 國土分斷과 民族分裂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南方과 北方이라는 서로 대립적인 두개의 國際的 力學關係에 의해 維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民族의 生存 및 平和에 영향을 미치는 安保與件을 살펴보면, 첫째, 國土의 分斷과

民族의 分裂이라는 現實, 둘째, 南北韓의 對峙狀況과 異質體制의 形成, 셋째, 自由民主主義 國家群과 共產主義 國家群의 이데올로기적 衝突, 네째, 美國·日本·中共·蘇聯 등 四強의 利害關係와 東北亞의 國際政治秩序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우리의 安保與件을 고려해 볼 때, 앞의 세가지 측면은 매우 靜的인 性格을 지닌 것들인데 비하여 네번째 측면은 매우 動的인 性格을 갖는 것으로서 時代의 狀況에 따라 많은 變化를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安保戰略은 動的인 國際情勢에 민감한 反應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때,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주요 強大國 사이의 關係에서 友邦이 敵國이 되고 敵國이 友邦이 되었던 變化도 볼 수 있었지만, 특히 70年代에 있었던 美國과 中共의 關係變化는 韓半島 周邊情勢의 關목할 만한 變化로서 우리의 安保狀況에 큰 衝擊을 주어왔던 것이다. 특히, 80年代에 들어 美·中共關係가 단순한 友好協力 關係에서 軍事協力까지 深化되고 있다는 점과 中共과 蘇聯의 새로운 和解雰圍氣가 成熟되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國際體制의 多極體制로의 轉移 속에서 복잡한 國際關係가 形成되고 있다는 점에서 美·中共協力關係는 우리의 安保論議에서 再考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美國은 對中共關係에 있어서 왜 이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해야만 했는가? 그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說明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對蘇牽制라는 世界戰略의 次元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經濟交易의 分野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美國의 中共에 대한 和解와 關係改善의 要因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글의 基本認識은 東北亞 國際情勢의 變化가 韓國安保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數로 看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여년동안 美·中共 사이에 전개되어온 協力關係는 北韓과 中共의 關係를 考慮해 볼때 韓國의 安保에 深대한 影響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內包하고 있으므로 美·中共關係의 展開過程과 本質을 糾明해 보는 것은 매우 意味있는 일 일 것이다.

## II. 美·中共 協力關係의 展開過程

### 1. 接近背景과 國交正常化의 摸索

1972년 2월 周恩來의 초청으로 닉슨대통령이 北京을 訪問함으로써 발표된 「上海共同聲明」은 美·中共關係가 急轉하는 轉換點이었다. 이 聲明에서 美國은 中共의 要求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中國’과 ‘대만은 中國의 一部分’이라는 주장에 양보함으로써 ‘두개의 中國’이라는 중개의 政策을 포기했으며, 동시에 대만의 分離도 認定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그리고 中共의 「平和五原則」에 일각한 領土不可侵, 內政不

干涉를 받아들여 대만문제의 해결을 中國人 자신들의 손으로 해야될 國內問題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緊張緩和의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防衛條約의 폐기가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美國은 한편으로는 대만의 자체 防衛力 增強에 協力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부부대와 군사요원들을 대만에서 撤收시키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아이젠하워行政府 때 締結되었던 대만 防衛를 골자로 한 決議案을 폐기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1975년 8월 헬싱키에서 東西間에 유럽 安保協定이 調印되자 美國과 中共의 關係는 불편해졌다. 즉 中共이 美國과 蘇聯의 代償트를 우려하여, 그해 10월에 僑冠華外相이 유럽 安保協定을 美·蘇가 세계의 霸權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中共과의 關係가 불편해지자 포드대통령은 1975년 11월에 中共을 訪問하여, 鄧小平과의 會談을 통하여 關係正常化를 持續적으로 推進할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南·北韓問題에 대해서는 서로의 異見이 있었지만 상호 이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포드대통령의 中共訪問은 共同聲明을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中共은 美國에 대하여 對蘇冷戰과 대대만관계의 단절을 중용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1976년 1월에 周恩來가 사망했고, 4월에는 毛澤東이 사망하는 등 일련의 격변 속에서 中共은 政策路線의 중심점을 상실하였고, 美國의 狀況도 매우 혼란하여 美·中共關係는 疎遠한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中共에서 江青 등 四人幫이 축출되고 재등장한 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이 채택되던 1978년에 이르러 美·中共의 國交正常化는 급속히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軍事的으로 蘇聯과 대등한 힘을 갖는 產業國이 되기 위해서 中共은 四大現代化計劃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을 美國 및 西유럽先進資本主義國家들로부터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다.

이와같이 中共의 國內狀況이 好轉됨에 따라 1978년 5월 브레진스키 安保擔當特別補佐官이 中共을 訪問하였고, 마침내 12월 15일에 워싱턴과 북경에서 美國과 中共의 國交正常化를 밝히는 역

사적인 성명이 발표되었다. 1979년 1월 1일을 기해 상호 대사관을 설치하고 美國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폐기하며, 中共은 武力統一政策을 포기함으로써 「日本方式」과 유사하게 國交正常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國交正常화에 있어서 中共이 先決條件으로 내세우는 「修交三原則」을 사실상 美國이 受諾한 것이며, 中共은 대만의 통일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美國이 대만과의 防衛條約을 폐기한 이후의 美國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는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美國이 대만과 經濟·軍事的 關係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에 中공이 同意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견해를 달리한다는 점에 合意한다(to agree to disagree)는 선에서 妥協을 본 것이다.

## 2. 經濟協力

1979년 1월 1일에 國交를 正常화한 美國과 中共은 2월 15일 대사를 교환하였으며, 鄧小平이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걸쳐 美國을 방문하여 兩國關係는 매우 순조롭게 發展해 나갔다. 이와같이 兩國의 關係가 深化되던 시기인 1970년대 후반에는 美·中共協력이 經濟部門에 집중되었는데, 中共은 1978년 이후 四大現代化路線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開放的 經濟發展에 박차를 가하여 외국으로부터 借款, 投資 및 技術을 도입하는 문제에 注力하고 있었으므로, 이와같은 中共의 經濟政策에 편승하려는 美國의 의도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美·中共의 經濟協力에서 가장 큰 장애는 韓國戰으로 인한 양국간의 凍結資產 처리문제였는데, 블르멘탈 財務長官이 1979년 2월에 中共을 방문하여 美國內에 凍結되어 있는 中共人의 資產을 반환할 것을 약속했고, 中共도 5년 분할로 美國의 請求者에게 讓渡할 것에 合意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또한 最惠國待遇條項(Most-Favored-Nation-Clause) 및 美國輸出入銀行의 借款問題가 있었는데, 이 問題도 1979년 5월 크렘스 商務長官이 中共을 방문했을 때 廣東에서 中共의 對外貿易部長 李強 사이에 調印된 貿易에 관한 協定에서 해결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카터대통령은 1979년 8월에

〈表 1〉 美國의 對中共 貿易量(단위: 100만달러)

연도	구분		總貿易量
	輸 入	輸 出	
1 9 7 6	135	222	357
1 9 7 7	171	223	394
1 9 7 8	824	356	1,180
1 9 7 9	1,724	654	2,378
1 9 8 0	—	—	4,790

자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 1981 Year Book, pp. 124-125.

美國의 對外援助法에서 中共을 ‘友邦國’ 범주에 넣게 함으로써 中共이 美國商品을 延拂로 수입할 수 있는 權利를 갖게 하였으며, 카터행정부는 中共政府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1979년 10월 議會에 上程하여 1980년 1월에 통과시켰다.

美國과 中共이 이와같은 努力을 경주하는 동안 「上海共同聲明」 이후 부진했던 양국의 貿易關係는 커다란 成長을 이룩하게 되었다(表 1 參照). 1977년에는 양국의 총무역량이 약 4억달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78년에는 약 12억달러에 육박하여 전년비 3배로 증가하였고, 79년에는 또 다시 전년비 2배로 증가하여 24억달러로, 80년에는 다시 약 48억달러로 팽창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國交正常화를 전후로 하여 美國과 中共 사이의 協力關係는 經濟部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美國과 中共의 經濟協力は 美國의 要求보다는, 오히려 四大現代化計劃을 推進하고 있던 中共의 要求에 의하여 主導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3. 軍事協力

1980년 이후 美·中共關係의 性格은 軍事協력으로 特徵지을 수 있다. 美·中共의 軍事協력은 크게 防禦用武器 移轉과 攻擊用武器 移轉, 그리고 長期軍事協력을 위한 措置의 3단계를 거치면서 확대되어 갔다.

美國의 對中共軍事協力 意思가 中共에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은 1978년 5월에 브레진스키보좌관이 北京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는 중공측에 蘇聯에 대한 美國의 防衛戰略을 설명하면서, 美國은 世界戰略上 蘇聯의 膨脹主義에 대해 中共과 共同對處할 意思가 있고, 蘇聯의 위협으로부터 中共이

安全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美國內에는 여전히 對中蘇等距離 外交政策을 支持하는 여론이 강하였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1979년 12월에 발생한 蘇聯의 아프간侵攻事態는 美國의 對中蘇政策이 명백하게 親中共政策으로 轉換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政策轉換은 1980년 1월 브라운國防長官이 北京을 방문했을 때 명백해졌다. 즉 그는 북경에서 中共에 대해 非殺傷用(防禦用)武器를 販賣할 것임을 公式的으로 公明했던 것이다.

따라서 中共에 輸出할 수 있게 된 軍事裝備의 品目は 트럭, 通信裝備, 헬리콥터 및 조기경보레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브라운國防長官이 밝힌 바에 따르면 人工衛星으로부터 情報를 受信할 수 있는 地上受信用 裝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美國이 中共에 대하여 防禦用武器의 販賣를 決定한 것은 中共이 強力하고 安定되게 現代化를 이루는 것이 美國에게 利益이 될 것이라는 判斷에서 나온 것이다. 美國의 이와같은 政策은 1980년 5월에 中共의 耿飜副首相이 워싱턴을 방문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美國과 中共 사이에 共同利益가 확대됨에 따라, 1980년 4월에 美商務省은 바르샤바條約國등과 같은 共產國國家의 범주에서 中共을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7월에도 中共에 대해 輸出許可의 基準을 緩和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9월에도 軍事支援裝備로 使用될 수 있는 400개 이상의 고도 技術品에 대하여 수출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美·中共軍事協力關係는 1980년에 레이건대통령후보가 ‘두개의 中國’을 의미하는 대만관계발언을 함으로써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中共의 태도는 이문제의 해명을 하고자 북경을 방문한 부시부통령후보에 대한 中共의 冷待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中共의 태도에 당황한 레이건—부시 후보는 8월 25일 로스엔젤레스에서 共同記者會見을 갖고 「극동政策에 관한 指導五原則」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레이건行政府의 對中政策의 기본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첫째, 美·中共關係는 양국의 利益을 위해 重要하다. 美·中共關係를 계속함에 있어서 貿易, 科學, 文化의 각 분야에서 交流를 확대한다.

둘째, 日本, 中華人民共和國, 大韓民國 및 中華民國과 協力하여 서태평양의 平和, 安定 및 經濟成長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極東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위협하는 侵略 또는 霸權追求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 同地域의 모든 나라들과 協力하고 協議한다.

넷째, 美國의 法律인 대만관계법에 입각하여 美國과 대만의 關係를 발전시킨다.

다섯째, 美國國益의 保護와 美國法律의 施行에 있어서 어떤 外勢의 간섭도 許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中共의 反應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人民日報는 연일 레이건대통령을 비난하는 論評을 실었는데, 이른바 대만관계법은 美國 國內法에 불과하며 결코 美·中共關係를 처리할 法的 根據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이건行政府가 출범한 후에 발표한 성명은 선거중에 했던 발언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와같은 差異를 처음으로 나타낸 것은 1981년 1월 12일 上院 外交委員會에서 행해진 헤이그國務長官의 발언이었는데, 美國이 中共과 協力を 強化하는 것은 美國의 戰略的 利益에 부합되는 것이며 대만관계유지에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만과 公式關係를 재개하겠다고 주장에서 후퇴하였다. 이와같은 변화는 對蘇戰略上 中共과의 協力이 重要하게 認識되었음을 의미하며, 美·中共協力이 재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레이건行政府가 中共에 대한 武器販賣를 최초로 公式的으로 示唆한 것은 1981년 3월에 포드전대통령이 北京을 방문했을 당시 對中共武器販賣에 관한 論議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4월에는 美行政府가 中共에 대한 軍事物資의 販賣와 援助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美國의 對中共武器販賣政策은 1981년 6월에 헤이그國務長官이 北京을 방문하여 中共側에 전달함으로써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中共에 전달된 획기적인 내용은 技術移轉의 緩和뿐만 아니라 販賣對象이 되는 무기로서 ‘殺傷用’武器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非殺傷用武器의 販賣에 국한되었던 美國의 對中共政策이 殺傷用武器의 販賣로 轉換되었다는 사실은 카터행정부 당시의 「對中共武器輸出三原則」중에서 輸出品目에 戰鬥用武器나 탄약이 포함

되지 말아야 한다는 첫번째 原則을 美國이 포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美國의 世界戰略에서 中共이 차지하는 役割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蘇聯이 軍事력을 이용할 기회를 제한하기 위하여 中共과 戰略的 協力を 擴大시키려는 美國의 政策的 意圖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와같은 美·中共關係의 展開는 1983년 2월에 슬츠國務長官이 中共을 방문하였고, 6월에는 워싱턴당국이 武器販賣對象國에 있어서도 中共을 나토 및 日本과 같은 友邦國 범주로 재분류하는 등 심화되었다. 中共을 ‘友邦國’으로 재분류하였다는 것은 이제 中共도 明視的으로 禁輸品目에 올라있지 않은 어떤 상품이든지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美國은 1983년 9월에 와인버거國防長官이 中共을 방문했을때 高度의 技術裝備를 中共에 提供하기로 合意하였는데, 거기에는 대전차미사일, 대공미사일, 그리고 레이더장비와 같은 高度裝備가 포함되었다. 동시에 양국은 實務軍事訓練團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美·中共의 軍事協力は 아직도 양국이 ‘軍事同盟體制’를 구축한 것으로 評價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極東의 軍事力問題에 있어서는 커다란 變化의 서곡이었다. 비록 美國이 中共에 제공하기로한 裝備의 種類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高度의 軍事技術이 移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中共軍의 現代化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1984년초에 이루어진 레이진대통령과 趙紫陽首相의 交換訪問은 83년까지 이룩한 美·中共協力的 結果로 兩國의 共同利害가 見解差異보다 더욱 重要하다는 점을 證明해 주는 것이었다. 특히 趙紫陽首相이 美國을 방문했을때, 그는 아프간事態와 캄보디아內戰에 대한 美國과 中共의 共同利害를 認定함으로써 양국의 戰略的 利害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레이진대통령의 中共訪問에서도 兩國關係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던 대만문제에 대해 兩國首腦가 15분동안만 거론함으로써 양국이 共同利益을 追求하는데 보다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立證되었다.

이어서 6월에는 張愛萍國防部長이 美國을 訪問하였는데, 그직후 美國政府는 中共과의 長期軍事

協力を 위한 措置를 취하였다. 즉 中共은 共產國으로서의 유고에 이어 두번째로 美國의 海外軍事販賣借款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資格은 中共이 美國武器市場의 長期的인 고객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張愛萍國防部長이 美國을 방문했을때, 美國은 제트요격기의 제작에 필요한 航空電子技術을 中共에 제공할 것과 중공비행사들에게 訓練도 支援해줄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대전차토우미사일, 호크지대공미사일, 로켓추진榴散彈, 高性能爆彈 및 裝甲貫通彈의 技術移轉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中共은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蘇聯製 MIG-21전투기의 複製品을 美國에 비밀리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美國과 中共의 長期的인 軍事協力的 追求는 1984년 말부터는 軍事使節團의 相互訪問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우선 1984년 10월에는 美國의 高位軍事使節團이 中共을 訪問하여 北京과 上海등 4개 도시의 軍事施設을 시찰하였으며, 11월에도 코브國防省人力擔當次官補를 團長으로 하는 軍使節團이 中共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또한 中共의 경우에도 1985년 1월에 海軍將校團이 美國의 軍事施設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中共은 美國政府로부터 水中音波探知機, 魚雷, 가스터엔진 및 對미사일艦砲 등 海軍用 最新 裝備의 販賣에 대한 同意를 얻어냈다. 그리고 1985년 1월 베시합參議長의 中共訪問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美國의 最高位 軍人士로서는 1949년 이래 첫번째의 중공 방문이었다. 그는 中共의 最高 軍事學校에서 강의하였으며 中共軍 機動訓練을 參觀하고 軍事戰略과 戰術, 그리고 武器에 관해 中共官吏들과 協議하였다.

1985년 7월에는 中共의 李先念主席이 美國을 방문하였는데, 이 방문에서는 美國이 中共의 核開發計劃에 필요한 裝備를 供給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됨으로써 美國과 中共의 技術協력이 핵무기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美國과 中共의 軍事協力は 앞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戰略的 利害關係에 대한 양국의 共同認識에 의해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그 展開過程은 美國이 우선 防禦用武器를 中共에 提供하는 線에서 시작하여, 攻擊用武器로

그 범위를 확대시킨후, 長期的인 軍事協力を 위한 一連의 措置를 취하는 過程이었다. 軍事協력의 이와같은 확대는 極東아시아에 있어서 양국의 戰略的 紐帶가 本質的으로 鞏固化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과 中共의 軍事協力關係의 發展은 本質적으로 그 限界性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양국의 協力關係는 純粹한 戰略的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美國과 中共 모두가 自國의 利益을 추구하는 범위내에서 軍事協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美國과 中共의 體制가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III. 美·中共協力關係의 變化展望

#### 1. 協力の 擴大 可能性

美國과 中共 사이에 相互協력이 보다 具體化된 것은 양국의 協力必要性에 대한 共通된 認識,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蘇聯의 膨脹主義政策이 주는 위협감등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앞으로도 양국의 共通된 認識이나 蘇聯의 威脅이 증가한다면 美·中共協력이 더욱 擴大되는 것은 자명하다.

비록 美國과 中共이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할 지라도 표면상으로 露出되는 양국의 共同利益은 첫째, 蘇聯의 威脅을 전제로한 勢力均衡을 통한 東北亞의 安定維持 둘째, 一國에 의한 東北亞의 霸權掌握 反對 셋째, 海洋輸送路의 安全維持 넷째, 經濟協力關係의 증진을 통한 自國의 經濟利益 追求 다섯째, 東北亞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 排除 등이다.

美國과 中共의 協力關係에서 反霸權主義란 蘇聯의 極東軍事力의 증대에 따른 것이므로 美·中共協力は 中蘇和解의 可能性을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우리의 關心을 集中시키는 中·蘇間의 화해분위기는 蘇聯이 中·蘇紛爭의 해결 可能性을 완전히 拋棄하지 않았다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美·中共關係에 있어 共同利益으로 認識되는 反霸權主義政策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蘇聯極東軍이 持續的으로 增強될 경우 美國과 中共의 軍事協力は 더욱 擴大될 것이다.

美·中共軍事協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또 하나

〈表 2〉 蘇聯極東軍의 增強 推勢

년도	구분	1965	1968	1969	1970	1975	1980	1985
	지 상 군 사 단	23	28	29	30	43	46	53
	태평양 {	585	670	700	720	755	790	820
	함 대 {	70	80	90	100	120	155	175
	작 전 기	1,430	1,700	1,800	1,870	2,010	2,040	2,190
병 력	지상군: 40~50만 KGB MVD (국경경비대, 내무성): 10만 해군: 13만 計: 70~80만 공군: 8만 (완편시 100만 이상)							

자료: Defense of Japan 1984, Tokyo, Defense Agency, 1984.

의 요인은 蘇聯의 블라디보스톡에서 北韓을 經由하여 베트남으로 連結되는 軍事航路의 구축으로서 이것은 蘇聯이 傳統的인 南進政策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極東에서 美國의 支援을 받으며 軍事的 強大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中共을 戰略的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며 極東에 있어서 美國이 갖는 戰略的 利害關係에 커다란 潛在威脅이 되는 것이다.

결국 蘇聯이 이 軍事航路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 이에 위협을 느낀 美國과 中共은 軍事的으로 더욱 밀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蘇聯해력의 막대한 증가는 美國과 中共으로 하여금 東北亞에서 軍事的으로 協力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蘇聯은 美國과 戰略武器制限會談을 進行해 오면서도 핵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동북아에 배치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같은 사실은 美國과 中共에 무엇보다도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蘇聯이 핵군사력을 비롯하여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美國과 中共의 軍事協力は 확대될 것이다(表 2 參照).

#### 2. 協力の 限界性

우선 美國과 中共의 協力關係를 疎遠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은 中共이 對美軍事協력을 통하여 美·蘇 사이에서 外交選擇權을 확대하고 미국으로부터 經濟·技術的 支援을 획득하겠다는 現實的 利益을 추구하는 반면 美國은 蘇聯의 아프간侵攻 이후의 中共과의 軍事協력에 성의를 보임으로써

對蘇戰略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美·中共關係의 發展을 阻害하는 要素는 대만의 존재이다. 물론 美國은 中共과 國交를 正常化하면서, 대만과 國交를 단절하고 防衛條約도 폐기하였지만 대만에 계속 防禦用武器를 공급함으로써 中共을 자극시켜 왔다.

세번째는 韓半島의 緊張狀態가 美·中共關係의 發展을 制約하는 要因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美國의 韓半島政策과 中共의 韓半島政策은 美國이 韓國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中共이 北韓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美·中共協力에 南北韓의 상충적인 利害關係가 介入될 수 있다. 이와같은 狀況은 美·中共協力の 폭을 제한하는 변수로서 作用한다.

### 3. 展 望

지금까지 살펴본 美·中共協力關係의 強化 可能性과 限界性에 비추어 볼때, 美·中共協力關係는 對蘇戰略과 實利追求를 위한 政治·經濟의 目的을 갖는 것이다. 비록 80년 이후에 軍事協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그것은 매우 상징적이며 제한적인 것으로서 양국간의 戰略의 제휴 同盟을 目標로 한것은 결코 아니었다. 즉 그것은 蘇聯의 팽창주의에 대한 상징적 대응정책의 성격울 갖는 것이며, 양국이 추구하는 적대적 이데올로기와 對外關係에 의해 協力の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었다.

美·中共協力關係의 이와같은 性格은 양국의 판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자는데 목적을 두고 발표된 1982년 8월 17일의 「제 2 차上海共同聲明」의 立場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美·中共協力關係는 그 性格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IV. 結論：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美·中共協力關係는 戰略的 反霸權主義와 經濟的 實用主義에 기초한 政治·經濟的 協力の 性格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蘇聯의 아브간侵攻을 계기로 美國과 中共은 軍事部門에 까지 協力の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 머물렀던 것이

다. 그러나 美·中共協力關係는 협력범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東北亞國際秩序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韓國의 安保와 生存樣式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실제로 과거에 있어서 東北亞國際秩序의 기초는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라는 對立的 이데올로기였다. 이와같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形成된 東北亞國際秩序를 現實主義에 입각한 勢力均衡의 원리로 대체하는 과정이 美國과 中共의 協力關係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美·中共協力關係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은 양국의 協力關係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平和維持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理由는 美·中共協力關係가 部分的인 東西和解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美·中共協力關係를 통하여 中共으로 하여금 北韓이 南北對話에 응하도록 함과 동시에, 北韓이 武力挑發 의지를 억제하도록 影響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실제로 美國과 中共이 接近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南北對話가 시작된 이래 斷續의이긴 하지만 南北韓의 對話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셋째, 美國과 中共이 각 분야에서 協力を 확대함으로써 韓國과 中共이 交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즉 中共은 美國과의 協力を 持續하기 위하여 그리고 韓半島에서 平和를 維持하기 위하여 北韓의 강한 不信과 반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韓國과의 關係改善과 交流擴大에 동의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韓國의 立場으로서도 경제적 측면과 對共產圈 外交라는 점에서 中共과의 交流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긍정적인 影響에도 불구하고 美·中共協力關係는 몇가지 면에서 韓國의 安保에 부정적인 影響을 줄 수 있다.

첫째, 美國과 中共의 軍事協력이 강화되면 美國의 東北亞戰略에 있어서 韓國의 戰略的 價値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美國은 韓國의 安保를 日本의 安保와 連結시켜 파악하기 때문에, 美國이 中共과의 軍事協력을 신뢰하게 될 경우, 美國은 韓國의 戰略的 價値를 낮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즉 日本防衛의 전초기지로서의 韓國의 戰略的 役割이 中共에게로 移轉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韓國은 美國이 美·中共協力으로 주도되는 美中日삼각협력체제 속에서 보다는 韓美日삼각안보체제 속에서 극동전략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外交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美國과 中共의 軍事協력이 강화되어 美國의 지원하에 한국·중공·일본에 의한 對蘇포위망이 형성되면 蘇聯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北韓과 밀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제한된 북한 지원을 벗어나 실질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더우기 이와같은 北韓과 蘇聯의 밀착가능성을 우려하는 中共이 蘇聯과 경쟁적으로 군사지원을 할 수도 있다.

세째, 美國이 中共과 軍事적으로 協力하면서 中共에 제공하는 軍事技術과 裝備가 中共을 통하여 北韓에 유입되어 韓國軍과 美軍에 부매량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째, 美·中共軍事協력의 강화는 蘇聯의 고립감을 증대시켜 蘇聯 극동군사력의 확대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최근에 蘇聯이 개발한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거쳐 靑州만을 연결하는 군사항로의 강화를 가져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다섯째, 美國과 中共의 協力關係가 강화되면 북한은 中共을 통하여 美國, 西歐 및 日本에 보다 용이하게 접촉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美國과 日本도 한국을 의식하지 않고 中共을 통하여 북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中共은 한국과 일본의 對韓半島政策의 전환을 강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정책과 近代化政策을 지원할 수도 있다.

여섯째, 美·中共協力關係에서 對美從屬을 피하기 위한 中共의 독립자주의교노선의 추구는 中共이 美國과 蘇聯 사이에서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을 美國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中共의 기본이데올로기가 共產主義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두개의 커다란 共產國家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美國과 중공의 協力關係는 양국관계의 내재적인 限界性으로 말미암아 韓國의 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보다 부정적인 방향에

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즉 미국과 중공의 협력관계는 한반도주변의 긴장완화를 가져오며 對北僥抑止戰略의 手段을 提供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美·中共이 갖는 戰略概念의 差異와 北方三角關係의 미묘한 역학관계로 韓國의 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소극적으로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북한의 남침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紛爭의 돌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된 지역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防衛力 증강과 經濟成長 및 社會安定化이다. 다행히 韓國의 經濟成長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韓國에게 유리한 狀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오히려 대남도발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추구 및 화해를 이룩하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韓國의 安보는 美國과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만큼 美國이 對韓 利害關係를 매우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즉 戰略的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次元에서도 東北亞에 있어서 美國의 國家利益에 한국의 안보가 결정적인 요소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은 東北亞에서 美國과 韓國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이익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對共產圈 外交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존하는 중공과 蘇聯의 갈등과 蘇·中·北韓이 가지고 있는 상호 이해관계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들과의 긍정적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東北亞의 國際秩序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도래할지도 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외교관계의 수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며,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中·蘇와의 교류와 北韓과의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安보協力の 次元에서 韓·美·日 三角安보體制의 구체화에 주력하면서, 그것을 美·中·日 三角協力體制와 연계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美·中共協力關係에 의해 주도되는 美·中·日 三角協力體制의 性格이 東北亞에서 韓國의 戰略的價値를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